

6. 송악면

가. 송악면 마을 1 (강당리)

1) 조사일정

1994. 6. 29., 이미진 기록

조사 첫날인 29일, 오후 2시에 숙소를 떠나 강당리로 향했다. 다행히 금방 버스가 와서 2시 20분에 강당리 1구 이석희씨 댁에 도착했다. 이석희 할아버지에게 <강당사(寺)의 스님 이야기>, <강당리의 유래>, <6.25당시 보국대 이야기>를 들었다.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보다는 구연자 중심의 이야기가 주로 나와서 기대만큼의 결과는 얻지 못했다. 3시 30분에 이석희씨 댁을 나와 이장댁을 찾아가서 마을개관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3시 50분 숙소에 도착해서 숙소에 있는 노인들에게 구연을 부탁했으나 다른 분을 추천만 해주고 구연은 거절하였다. 할 수 없이 추천을 받은 곳으로 가보니 이미 3조가 조사 중이었다. 그래서 다시 송남국민학교로 가서 이 마을 출신 선생님이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모두 타관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조사 첫날의 일정을 마치기로 하고 4시 30분에 숙소로 돌아왔다.

2) 마을개관

【송악면 강당1리】

337-920 충청남도 아산군 송악면 강당1리

1994. 6. 29., 김명선 조사

외암리 민속 마을에서 한참 들어온 곳에 위치하며 신록이 울창하여 행락객들이 많았다. 하지만 유람시설이나 다른 오락 시설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다만 새로 지은 간이휴게소가 작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강당리1구의 자연부락 이름은 땡갈막이다. 총 가구수는 57세대이고 인구는 128명이다. 강당리1구의 주민들은 거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약간의 소와 사슴을 사육하고 있다. 그러나 송악면의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하였다.

국민학교는 근처 송악국민학교로 통학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송남중학교, 고등학교는 온양고등학교나 아산고등학교로 통학한다고 한다. 행정기관은 없고 순복음 송악교회가 하나 있다. 하지만 대개가 민간산양 아니면 불교를 믿고 있다고 한다. 전래하는 민속놀이는 없다.

3) 구연자 조사

【강당리 구연자1】

강당리 1구 28-1번지, 이석희(李錫喜) 남, 84.

1994. 6. 29., 최소정 조사.

공주에서 이주해 60년째 거주하고 있다. 작은 체구에 머리가 많이 벗겨졌고 귀가 길게 느리지고 컷볼이 큰 부처님 귀인데, 귀가 잘 안들려 질문하면 다시 되묻곤 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상체를 앞으로 많이 굽히면서 애를 쓰기도 했다. 구연시 보통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다가 가끔 손짓을 하기도 했다. 구연하면서 줄 곳 존대를 쓰며 조심조심 구연하였다. <강당사의 스님 이야기>, <강당리의 유래>, <6.25당시 보국대 이야기>를 구연해 주었다.

4) 설화자료

【강당리 설화 1】

송악면 강당리, 1994. 6. 29., 이미진, 김명선, 최소정 조사.

이석희(남, 84)

강당사의 스님 이야기, 강당리의 유래, 6.25당시 보국대 이야기.

뭐 늙은이 옛날얘기 별건데. (조사자: 아니 저희들한테는 별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하고 저희들은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책에서도 볼 수 없는 거구…….) 글귀도 괜찮은가요? (조사자: 예, 할아버지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모두다요.) 허허. 여기에 대해서 글귀 좀 읊을까요? (조사자: 네.) 여기가 산골이거든요. 청산에 대동적¹⁾이요. 집뒤에 청산이 채물같이 썩이고²⁾, 문전유수는 독소래³⁾라. 문전에 뽑는 물은 복이 때로 들어온다,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허허. (조사자: 할아버지 있잖아요. 이 마을에 대해서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유래 같은 거 들은 거 있으면…….) 아, 내가 여기 와서 산 재가⁴⁾ 얼마 되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요기 가문 강당사라는 절이 있었거든요? 그전에 김현당 스님이, 내외분이, 살았는데 좋은 일을 그분들이 많이 했어요. 그전이는 살기가 어려우니까, 여 아래가면 광덕산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무를 해다가 팔아야 스승쌀⁵⁾, 입정쌀⁶⁾, 입정쌀 그런거 스승쌀 그런 것을 먹느라고 나무꾼이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땀졌어요. 그때에, 그분이, 그 김현당 스님 내외, 안, 안이서는⁷⁾ 최씨고 배깁이서는⁸⁾ 김씨고, 그래서 김현영이라고 하느다 자기네 집앞이다가 나무를 바쳐놓고서는 자기네 드러놀려고 하니까 작은 애들이 “너희들 들어요. 배고프 걸랑은 우리집에서 밥들 먹고 가라.” 이래서 많이 도움도 많이 줬어요. 그래 그 양반이 벌써 죽은 재가 10여 년 되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살아, 들어서 살지요. 그 김현영 스님이 그 당시 좋 좋은 일을 많이 했어, 김현영 스님이. (조사자: 그럼 이 마을에는 내려오는 전설이나 그런 건 없어요? 이 강당리에는요?) 글썽요. 그 원당스님이 그렇게 잘 했다는 것만 안지 그런 건 몰라요.

(조사자: 이 강당리란 이름이요. 예전에도 강당리였어요?) 그전에는 여, 저, 저기 가문은 여기, 저, 지금, 저 얘기한 암자 들어가면 그전에는 논산 이씨, 이암 이씨, 또 파평 윤씨 세 분이 공부하느라고 강당을 지었대요, 그 양반들이. 그래서 그 양반들이 인제 몇 백 년 전, 몇 백 년 전 양반들이니까, 그, 거기다가, 이, 실랭이라고 있잖아요? 여 그전이는 그, 저, 저 밤나무, 그걸 신주라고 했어요. (조사자: 네.) 밤나무를 깎아다가 이렇게, 참, 보고 춤추러 가다, 지사⁹⁾를 지내고 이래있대요. 그랬는데, 그 뒤로다가, 인제 대원군 시절에 그, 강당을, 못하

게 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느껴서 강당사다라고 이렇기 했다는 거요. (조사자: 그 절 때문에 강당리가 된거예요?) 아니죠, 그전에 원래에 여기 강당리예요, 월 강(講)자, 집 당(堂)자. 강당리예요.

(조사자:6.25 때 고생한 이야기 좀 해 주세요.)보국대라고 있어, 보국대.(조사자:보국대요?) 보국대, 보국대라고 뭐냐면 말여. 사리다 충청도에 배를 죽 넣어 구멍이를 죽, 그러구서 월 양산서 요, 며칠 죽 하구서 죽여.(조사자:산 사람어요?)아, 그럼, 산 사람을 죽여. 그래가지구 아 인저 보국대라고, 나도 보국대를 했었시유. 먹을 거 굶어지구 가야 하거든요? 가면서 먹을 걸. 그래 우리 안늬은이¹⁰⁾가 저녁에 보리를 찧고 콩보리를 벗겨서 보리쌀 말이나 해주 대요? 그걸 굶어지고서 여기 공주를 넘어가면서 각을재가 있어요. 공주 유구를 넘어가려면 각을재.(조사자:각을재?) 예. 거기를 무네미라고 하지요. 거길 가니까 우리와 같이 보국대가 있어요. 그래서 인저 그랬어유. 각을재 사는 분이 나보구서. 그 사람 보니까 알라구 하더라 유. 그러면서는 “변소간에 가서 내가 나오렐 때까지 똥누고 앉아 있으라.” 그래 변소간이 가서 시간이 한 삼십 분 더 걸렸을 거여. “똥 다 똥걸랑 나오게.” 그러더믄 그라. 그래 나와 보니까 가버렸더믄 그라. 그래서 각을재 가서 그렇게 치르고 나서 이제 집으루 올라니까, 아직 못오잖아유. 보국대가 가려니까 밤으로 밤으로 해서 산으로 산으로 해 집에 온 적이 있었지유.

나. 송악면 마을 2 (동화리)

1) 조사일정

1994. 6. 30., 최상은 기록

오전 9시 50분 숙소를 출발하여 폭우 속에 송학리 이민구씨 집을 찾아 갔으나 집이 비어 있어서 역촌리로 돌아와 차를 갈아타고 동화리를 찾았다. 강완식씨가 유능한 구연자라 하여 집을 방문하였으나 기독교 교회에서 나온 줄 알고 조사를 거절하였다. 그래서 동네 수퍼에 드러가 식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장 강균식씨를 우연히 만나 마을 연역에 대해 듣고, 짙막한 지역 설화를 들었다. 강완식씨와는 12촌간이라 하여 그의 안내로 강완식씨의 집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로 있었던 일만 이야기해야 한다는 소신을 사지고 있어서 설화는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특히 부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6.25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였다. 강완식씨의 <덕대우리의 유래>와 이성숙씨의 <물왕산성의 유래>를 듣고, 다른 자료는 별로 없을 것같아 오후 1시 20분경 내놓은 살구를 얻어서 숙소로 향했다. 역촌리에서 중식을 하고 숙소로 돌아오니 다른 조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 두 분을 다른 방으로 모셔서 이야기를 들었다. 좀 취한 듯한 백진성씨가 와서 국가 보훈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조사자가 그 이야기와 관련하여 현명한 고을 원님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자 <고을 원님을 능가하는 소년> 이야기와 <토정과 소금장수>이야기를 해 주었다. 다른 방에서 얘기를 듣고 있던 방상운씨가 이야기할 기회가 없는 듯 자리를 옮겨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에게서 <효자 다리 이야기>와 <과부와 아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3시 30분에 조사를 마쳤다.

2) 마을 개관

【송악면 마을 2】

337-820 충청남도 아산군 송악면 동화리 1구

1994. 6. 30., 한혜인 조사

동화리는 저수지를 지나 길게 뻗은 가로수길 가에 위치하고 있고 덕대우리라는 자연부락 이름을 갖고 있다. 동화리의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 마을내에서 나타나는 빈부의 차등이 매우 심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촌향도 현상으로 젊은이들은 찾아보기 어렵고, 마을내에 있던 국민학교도 이번에 폐교되었다고 한다.

3) 구연자 조사

【동화리 구연자 1】

송악면 동화리 1구 23번지, 강완식(姜完植), 남, 70.

1994. 6. 30., 권민정 조사.

자그마한 체구에 주름살이 많이 갔으나 나이에 비해 근력이 세어 보인다.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으로외지 사람들에게 대한 경계심이 많아 이장의 직접 소개로 안심하고 난 다음에야 만나 주었고, 일단 안심을 하고 나 다음에는 농촌 사람의 인정을 최대한 베풀어 주었다. 특별한 학력은 없는 것같은데, 사실에 입각해서 증거물이 있는 이야기만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깊이 깔려 있어서 조사의 취지에 부합하는 자료는 별로 얻지 못했다. <덕대우리의 유래>를 구연해 주었다.

【동화리 구연자 2】

송악면 동화리 1구 23번지, 이성숙(李成淑), 여 63.

1994. 6. 30., 권민정 조사.

강완식씨의 부인으로 이웃 마을에서 동화리로 시집와서 살고 있는데, 강완식씨보다는 체구가 크고 성격이 활달하여 연전에 서울 구경한 자랑을 열심히 하고 남편 못지 않게 인정스러워 먹을 것을 있는 대로 갖다 주려고 했으나 조사자들이 굳이 사양하자 남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주 끼어들어 거들었다. 강완식씨와 매우 유사한 생각을 지니고 있었고, 자신의 시집살이 경험을 얘기하는 데 열을 올려 설화다운 설화를 구연해 주지는 못했다. <물왕산성의 유래>를 구연해 주었다.

4) 설화자료

【동화리 설화 1】

송악면 동화리 강완식씨택, 1994. 6. 30., 최상은, 한혜인, 권민정 조사

강완식 (남, 70)

덕대우리의 유래

동화, 외암 앞

(조사자:왜 덕대¹¹⁾우리라고 했는지는 뭐 전해내려오는 그런 건 없을까요?) 요 앞에 요앞에 엄청이 큰 참나무가 있었는데 쓰러졌대요.그래서 그 옛날에는 사람이 사망하면은 사망하면 그 성인이 아닌, 성인이 아닌, 성년축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그 시체를 갖다 꺼꾸로 매달았대요. 예. 나무에. 그걸 덕대라고 하는데. 그래 그걸 가지고 덕대우리라고 하지않았나 이러키 추측을 하고 있어요.

【동화리 설화 2】

송악면 동화리 강완식씨택, 1994. 6. 30., 최상은, 한혜인, 권민정 조사.

이성숙(여, 63)

물왕산성의 유래

(조사자:그런데 할머니 왜 세웠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 옛날 전장하느라구 거기다, 고구려 때 거기 성 쌓은 거야. 거기가면 성이 있어요.(강완식:아, 성은 거기 지금두 그 성이 지금두 있으니까. 왜냐면 저기 이 온양 이팔 저기 아파트 세우고 이팔재끼루다 가면 저기. 구온양서 보면 성이 뵈다구. 그러면 큰 돌이 한 서너케루다 쌓은게 지금두 있다구.) 아, 염치면에 새터라구 하는데 거기가 방현리 2구야. 방현리 2구는 저기 쌍용, 음봉가는 길이 이 찾길 옆이가 방현리구. 거기는 방현리 2구야. 새터가. 새터라는 동네야, 새터라는 동네데. 거긴 집도 몇 채 없었는데 거기 들판에다 목장도 세우고 지금은 좋아졌지. 그래 거기 물왕산이라는 데가 있어. 옛날에 고려 때 성쌓은 거야. 돌팍이루다 이렇게 노프게 큰돌을 갖다 성쌓은 거야.

다. 송악면 마을 3 (역촌리)

1) 조사일정

1996. 12. 16 ~ 17., 전정옥 작성.

송악면·신창면·선장면·도고면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보완조사를 위해 12월 16일 오후 1시 숙소인 신창면 읍내리 노인회관에 도착하였다. 조 편성을 하고 장비를 점검한 후 첫째 날 답사를 나갔다. 최상은 선생님과 함께 역촌리 노인회관을 찾아가니 할아버지 몇 분이 있었다. 조사의 취지를 아려 드리고 20여 분간 구연을 간청하자 방상운씨가 조치원에 있다는 <효자다리 이야기>를 해 주셨다. 역촌리 노인회관을 나와 다음 조사지인 외암리로 향했다.

역촌리에 새로 지은 노인회관이 있다는 말을 듣고, 보완조사 2일째인 17일 오전 10시 다시 역촌리로 향하였다. 기존 노인회관과 같은 마을에 인접해 있는데, 송악면 노인들이 대부분 역촌리에 모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 더 건립한 듯하다. 새로 지은 깨끗한 노인회관만큼이나 노인들도 모두 신사들처럼 단정한 모습이었다. 화투를 치느라 조사자들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그중에서 박민재씨와 김용만씨가 구연을 해 주었다. 박민재씨는 <설화산 전설>, <기린절터 이야기> 등을 구연해 주었고, 박민재씨의 구연이 끝나자 옆에 있던 김용만씨가 “그런 이야기면 나도 안다.”고 하면서 광덕산에 있는 <지관이 잡아준 터에 집을 진 세 형제 이야기>를 해 주었다. 더 이상 구연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다음 조사지인 도고면 기곡리로 향했다.

2) 마을 개관

【송악면 마을3】

337-920, 충청남도 아산군 송악면 역촌리 1구.

1994. 6. 29., 권민정 조사

예전에 말을 타고 와서 쉬어 가는 역 역할을 했다고 해서 역말이라는 자연 부락이름을 갖고 있는 역촌리는 소나무와 감나무가 많이 있어 한적한 전원부락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도로변에는 면 소재지로서의 발달된 모습도 보여준다. 마을에 송남 국민학교와 중학교가 있고, 면사무소와 농협이 있다.

337-920, 충청남도 온양시 송악면 역촌리 1구.

1994. 6. 29., 이은화 조사

송악면 면사무소가 있는 번화한 마을이다. 그래서 그런지 동네가 깨끗하고 부유해 보였다. 자연 부락 이름은 역마을이다. 이곳이 옛부터 교통의 중심지 노릇을 해 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도 마을 가운데를 큰 차도 하나가 가로지르고 있고 교통량이 매우 많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차도 양 옆으로 산이 자리잡고 있어 마을 전체가 산에 둘러 싸여있는 모습이어서 차도에서 벗어나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한적하고 평온한 느낌이 들었다.

총인구는 600여명으로 130여세대가 살고 있고 남녀 비율은 거의 반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교통의 중심지라지만 생활 수준은 다른 마을에 비하면 보기보다 낮은 편이라 한다. 주민들은 거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특수작물은 자신이 필요한 양만큼 하는 자급자족식인 것 같았다. 바로 큰 차도 옆으로 국민학교와 단위 농협, 그리고 큰 농협 직판장을 볼 수 있다. 중학교는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송남 중학교로, 고등학교는 온양쪽으로 나가서 다닌다고 한다. 종교는 자유로와 가까운 곳에 절이 있고 마을에는 교회가 2개 있었다. 전래하는 민속행사는 없다.

337-920, 충청남도 아산군 송악면 역촌리 1구.

1994. 6. 30., 김명선 조사

송악면 중에 가장 발전된 마을이고 큰길들이 많다. 농사를 짓는 사람과 상업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반반이다. 비온 후라서인지 깨끗한 산천과 어울리는 마을이라고 생각했다. 역촌리의 자연부락 이름은 역말이다. 다른 마을에 비해 젊은 이가 많은 편이고 생활 수준은 보통수준이라고 한다. 국민학교는 송남국민학교로 다니고 중학교는 송남중학교, 고등학교는 은양고등학교로 통학한다. 행정기관은 이 마을에 집중되어 있다. 면사무소가 있으며 경찰서도 있고 보건소, 소방서, 우체국이 있다. 종교는 불교가 많으며 근처에 있는 절에 다닌다고 한다. 정월에는 쥐불놀이를 한다고 한다.

3) 구연자 조사

【역촌리 구연자 1】

송악면 역촌리 8-3. 강희인(姜熙仁), 남, 65.

1994. 6. 29., 이재향 조사.

33년 동안 현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3~4년 전까지 이장직을 7~8년간 했다. 작은 체구에 피부가 검고 등산모를 썼고 금테 돋보기 안경을 썼다. 말하는 것이 느리고 점잖게 말을 한다. 국민학교를 졸업했으며 이 동네는 내려오는 전설이 없다고 했고 청중들도 다 동의했다. <역촌리 마을 이름의 유래>를 구연해 주었다.

【역촌리 구연자 2】

역촌리1구 37번지., 김용만(金龍萬) 남, 75.,

1994. 6. 30., 최소정 조사

3대째 역촌리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다. 모시같은 얇은 흰색 바지저고리를 입고 계셨다. 키도 상당히 큰 편이고 풍채도 좋으며 머리는 곱슬머리이다. 컷볼이 크며, 다른 할아버지가 구연하면 경쟁하듯 바로 뒷따라 구연을 하려고 했다.

송악면 역촌 1구, 김용만(金龍萬), 남, 77.

1996. 12. 17., 김태현 조사.

학교에 다녀 본 적이 없으며, 현재 농사에 종사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 70년 정도 살았다고 한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있으며 조용하게 구연하였다. <지관이 잡아준 터에 집을 진 세 형제 이야기>를 구연해 주었다.

【역촌리 구연자 3】

송악면 역촌리 18-3번지, 박민재(朴旻在), 남, 66.

1996. 12. 17., 김태현 조사.

학력은 소학교를 나왔고 줄곧 논농사를 지어왔다. 이 마을에서 10대째 살고 있다 한다. 귀가 크고 귓볼도 유달리 크며 턱 가운데에 큰 사마귀가 나 있다. 얼굴은 불그스레하고 검버섯이 많이 나 있다. 별다른 버릇이나 특징없이 차분하게 구연하였고 청중들은 대체로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편이었다. <설화산 전설>과 <기린절터 이야기>를 구연해 주었다.

【역촌리 구연자 4】

송악면 외암리1구 216번지. 방상운(方相雲), 남, 76.

1994. 6. 29., 한혜인 조사

처음부터 조사자들에게 호감을 보인 분이지만 그렇게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는 아닌 듯하다. 이야기를 하는 도중 조사자를 쳐다보는 일은 거의 없었고 언변도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다. 조사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여 자신의 선조 이야기라면서 <쌍둥이 남매의 성 썩기와 온양 방씨>를 구연하였다. 자신의 34대 할아버지는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오기도 했지만 지금은 농사꾼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도 곁들였다. 원래 고향은 예산이고 공주에서 살다가 외암리로 온 지는 63년 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온양 쌍골의 유래, 역촌리의 유래 등도 구연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도깨비불>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었다. 구연한 이야기들을 천안에 사는 소설가에게서 들었다고 하는데 그 소설가의 정체는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쌍둥이 남매의 성 썩기와 온양 방씨> 이외에는 자료적 가치가 없는 사실 얘기였다.

송악면 외암리1구 216번지. 방상운(方相雲), 남, 76.

1994. 6. 30., 최소정 조사.

약 63년 전에 이사해 거주하고 있다. 목이 유난히 짧았고 어깨가 굽었다. 얼굴이 검게 탔고 주름도 많다. 구연시 주로 바닥만 보고 말씀하시며 손짓은 약간만 곁들인다. <효자다리 이야기>를 구연해 주었다.

송악면 외암리1구 216번지. 방상운(方相雲), 남, 78.

1996. 12. 16., 김태현 조사.

방상운씨는 학교에 다녀 본 적이 없으며, 역촌리에는 65년 정도 살았다고 한다. 외모상의 특징으로는 키가 작고 눈 역시 매우 작은 편이다. 광대뼈가 약간 튀어 나왔고 앞머리는 하얗

게 세고 뒷머리는 반백인데 비교적 술이 많은 머리를 뒤로 다 넘겨 빗었고, 양 볼에는 깊은 주름이 패었다. 구연시에는 담배를 계속 피우며 매우 차분하게 구연하였다. 조치원에 있다는 <효자다리 이야기>를 구연해 주었다.

【역촌리 구연자 5】

송악면 거산리 154번지, 서석원(徐錫源), 남, 75.

1994. 6. 30., 최소정 조사.

현재 10대손째 거주하고 있으며 머리가 벗어져 나이가 많이 들어보인다. 구연시 팔자 누엃을 연방 움직여서 약간은 신경질적으로 느껴진다. 구연시 약간만 곁들이고 ‘말이여’를 자주 쓴다. <이지함이 죽게 된 사연>을 구연해 주었다.

【역촌리 구연자 6】

송악면 역촌1리 17번지, 성과영(成科永), 남, 86.

1994. 6. 29., 이재향 조사.

연기군에 50년 동안 살았고 가게를 경영하고 있다. 보통 체구에 은테 돋보기 안경을 썼고 나이 탓인지 머리가 벗겨졌다. 코 밑에 수염이 약간 나고 입 주위에 주름과 검은 반점이 많다. 구연시에 손동작으로 오른손을 폈다 굽혔다 하고 코를 자주 만졌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말 중간에 ‘쿵’하고 소리를 냈다. 처음에 “늙은이가 아는데 뭐가 있냐?”며 얘기를 하려하지 않았으나 일단 말문이 터지자 많은 구연을 했다. 뚜렷하게 배운 것은 없지만 역사에 대해 많이 아는 것 같았고 한문에 능통한 것 같았다. <선비와 소금장수>, <현명한 사또>, <홍씨 열녀비> 등을 구연해 주었다.

【역촌리 구연자 7】

송악면 외암리 2구 614-1번지 원종옥(元種玉), 남, 72.

1994. 6. 30., 최소정 조사.

서울에서 79년에 이주해 거주하고 있다. 흰 잠바에 흰 엑스포 모자를 폼나게 썼다. 자주색 양말이 격에 맞지 않게 눈에 띈다. 짙은 눈썹을 가졌고 점잖게 생겼다. 구연시 ‘말이야’란 말을 반복하며 자주 입맛을 다신다. 말투가 청중을 약간 무시한다. 청중들은 진지하게 듣고 참견도 약간 한다. <이무기가 용된 이야기>를 구연해 주었다.

4) 설화자료

【역촌리 설화 1】

송악면 역촌리 노인회관, 1994.6.29., 황재영, 이은화, 이재향 조사.

강희인 (남, 65)

역촌리 마을 이름의 유래.

역촌, 외암1 앞

(조사자:할아버지, 그럼 여기가 역촌리 잡아요.) 역촌리 (조사자:예, 동네이름 옛날 이름은 뭐였어요?)옛날, 역마을이여. 역마을. (조사자:역마을이요. 예, 역마을. 이름이 어떻게 이름에 관한, 마을 이름에 관한) 역마을은 저기 기여. 이조때, 이조때 인제 차가 없기 때문에 걸어 땡기잖아. 그래 인자 뭐, 말타고 땡기지 않으면 뭐, 인제 인제 걸어다니며, 여그 와서 쉬었 대야. 여그서 장기두고 그랬디아. 서, 서울 땡길라면 말야. 그래서 인자 역 역(驛)자 그렇게 역마을, 역이라는 애기지. 지금 말하자면 기차 역인지 자동차 역인지, 역이라는 말이지.

【역촌리 설화2】

송악면 역촌리 노인회관,1994. 6. 30., 이미진, 김명선, 최소정 조사

김용만(남, 70)

지관이 잡아준 터에 집을 진 세 형제 이야기

역촌, 외암1 앞

옛날 지리라면 기가 맥히게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애길 들으니까 이건 내가 누구한테 들은 애기지 내가 본애기는 아니라구. 자기가 기술이 그만치 용한디 그 아들만 살구 아버님은 말여 출타를 하고 없더라 이거여. 그래서 인저 거기를 가가지구 그 아버지를 찾아뵈게 아들만 집에 있구. “우리 아버지는 출타를 했습니다.” “출타를 했으니 언제쯤 돌아오시냐?”하니, “한 번 가시면 두 달 석 달 그저 속히 안들어옵니다.” 아 그러냐구. 그런게 밥을 저녁을 해줘서 먹고 하루 저녁 천상 날이 어두우니께 자구서 집에서 올라와서 언덕을 이렇게 보니께 세상에 말야 터가 얼마나 좋던지 터가 거기다 집을 짓구 살면은 말여 당대의 부자가 되고 아들이 말여 출세할 기운이 있는데 그걸 그냥 누비고 있더라 이거여. 그래서 오다가 말고 들어가서 아들들 보고 얘기를 했어. “내가 여가 가다가 보니까 이 터가 말이여 이렇게 좋은 터기 있는데, 여기 있느냐?”고 말이여. “아버지가 이 지리를 잘보고 있는데 여긴 왜 이러냐?”구. “아, 그러시냐?”구.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애기 않더라.”구. 아니 그러내구 “그럼, 이것 좀 가르쳐 주슈.” 아들 삼형제를 데리고 나가서 여기다 이렇게 여기가 터가 얼마나 좋은데 여기다 지으면 당대에 부자가 되고 말여 아들들 출세할 터라 이거여. “가시지 말고 우리 근방에 나무가 있으니 나무를 딱 들어서 있는께 저희가 나무를 베어다가 금방 삼형제가 하니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르쳐주슈.” “그렇게 하라.”구. 아들 삼형제가 심차고 커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 터를 잡아 집을 짓는디 집을 두 달간을 집을 지었어. 두 달간을 집을 짓고 나서 집을 다 짓구 나서 집을 다 짓구서 큰아들이 말여 집을 잘 졌은께 지의 아버지는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고 큰아들이 거기가 살라구 거기를 가니깐 거기서 하루 저녁을 잘라구 잠을 못자겠어. 참말루 잠을 잘려니까 집이 넘어가려구 하는거 같구 시상 잘 수가 없어. 도로 찍겨 나온 거여. 네가 둘째 네가 가서 자봐라. 그런데 둘째가 그날 가서 잠을 자두 세상 잘 수가 없어. 그 도로 찍겨왔다 이거여. “나두 못자겠습니다.” 막내 니가 가서 자

봐라. 그래서 시째 아들이 가서 잠을 자니까 도무지가 졸려와요. 뭐 그만치 편할 수가 없어. 편할 수가 없어가지구서 잠을 잘 자는디, “나는 자도 아무렇게 좋은데 왜 그러냐?” 하니께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자고 나이께 그 다음날 지 아버지가 온 거여. 지 아버지가 와서는 오다 보니까 앞에 집을 기가 맥히게 잘 지어놔거든.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지었지? 나보다 더 용한 사람이 있구나.’ 그러 이제 그러구선 집에 와서 마누라하고 아들 삼형제를 놓고 “집을 누가 지었니?” 하니, “충청도 아무 지관이 와서 집을 지었습니다. 이터가 좋다고 해서 이 집을 지어놔는디 우리가 지었어요.” “그런데 네가 자니께 잘만하데?” “어디가요? 지가 하루저녁을 자고 봐도 세상 잘 수가 없구 말이여. 그래서 켜켜오고 들췌 아우가 하루 저녁을 잘래도 켜켜오고. 이틀씩 저녁에 켜켜와서 막내 동생이 자니께 말여 그렇게 편안하고 좋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랬다.”고 하니께 그래가지고서 그랬는디 그만 뒤라. 그러고 밤중에 애들은 전부다 잠을 자고 잠을 다 자고 이렇게 하구 있는디, 마누라를 밤중에 하나 아들들 모르게 방에가 자빠뜨려놓고 칼을 이만치 갈아놓고 “너, 이년 너 바른대로 얘기해야지 네가 살고 나 살고 이라지 너 만약 그짓말하면 너죽고 나죽을 테니께 너 정당하게 얘기하라.” 말여. 그러게 “이 양반이 왜이러시냐?” 말여. “그러지 앓으시더니 왜 그러시냐?” 그런께 “아녀 니가 이럴 수가 없다” 구 말여. “바른대로 얘기 하라.”구 말여. “칼이나 놓슈. 내 바른대로 얘길 할테니 놓슈. 내가 무슨 마 이 부정하고 잘못돼서가 아니고 당신이 마음이 헛되 여름철에 더워서 누워서 나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밤중에 잠을 자는데. 시악시에게 이런 얘기해서 안됐지. 어떻하지? (조사자:하 켜찮아요.) 밤에 자는데 당했다 말여. 그뒤로부텀 태기가 있어가지구 막내아들을 낳다 말여. 그래 막내 아들을 낳는디 개가 가서 자니께 켜찮는거예요. 어떻합니까.” 이러니, “그러냐?”구. “이런 얘기를 말이여 니나 말고 내나 알고 해야지 이런 얘기 만약 탄로되어 자식들이 알면 안 되니께 도무지 말하지 말라.”구 말여. 그래서 지관이 알기는 기가막히게 아는디 아들을 낳아야 자기 아들이 그 터에 운이 안 닿아가지고선 운이 안 닿서 터는 좋은지 아는데 그래서 못 짓구 있어가지구 아들이 딴 사람 아들이 되가지구 운이 맞아서 잘 살았대. 전설이 그런 얘기가 있었어.

【역촌리 설화3】

송악면 역촌리 노인회관, 1996. 12. 17., 전정옥, 김태현, 배수아, 지화숙 조사

박민재 (남, 66)

설화산 전설, 기린절터 이야기.

역촌, 외암 2 뒤

설화산이라는 거는(조사자:설화산?) 설화산.(조사자:설화산요.) 눈 설(雪)자 빛날 화(華)자여. (조사자:아~.) 눈설자, 한문으로다 어이?(조사자:예.) 빛날 화자를 써.(조사자:빛날 화자여?) 빛날 화자야. 저기 뭐야 축하하니 뭐니 말이지. 저기 저 빛날 화자를 써 어이? 설화산인데 설화산 제일 상봉에 가며는,(조사자:네.) 이 저기 옛날에 여기 지방분들이 (조사자:네.) 날이 가물던지 하면 비가 안오잖아. 그럼 여기 지방분들이 말이지, 기우제를 지냈어. 기우제를 지냈는디, 그 상봉에 가며는(조사자:예.) 천연적으로다가(조사자:예.) 바위가 묘자리 (조사자:묘자리요?) 묘자리. 관하나 들어갈만큼(조사자:예.) 이렇게 아주 천연적으로 되었어. 어 산마루에 저 상봉에 가며는, 저기저 거기다 모이를 쓰면 전설적으로다 말이지 자기가 그 자손이

(조사자가 무어라고 하자) 아녀 상봉이여. 희망사항대로 된다고 해서(조사자:아~.) 아주 명당이라고 말이지. 그렇게 인저 전설적으로 내려와서 말이지, 욕심 많은 사람들이 관을 거갔다 인자 투장을 해. (조사자;투장이 뭐예요?) 몰래 갔다 묻어 쓴다 말이야. (조사자;땅주인은 따로 있는대?) 아니 공동적 이니까. 개인산이 아니거든.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국유령이야. (조사자:예.) 설화산이. 여기에 인자 그 욕심, 길이 좋은 전설을 듣고 욕심많은 사람이 말이야, 그걸 갔다 인자 몰래 쓴단 말이야.(조사자:아~.) 몰래 쓰면는 비가 안와. 그래서 가뭄이 드니까 말이지. 날이가면 저기 각처에서도 인저 기우제 지내고 그러면 알잖아요들. 어? 그래. 여기 사람들도 말이지. 아 거기다 기우제 지내고 저 제사 지내고 말이지. 거기 파서 묘에 들어가 파헤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 (조사자:왜 그랬을까요? 왜? 거기다 묘자리 써서 잘 된 사람 있어요?) 전설적이지. 그러니까 전설만 듣고 거기다 묘를 써본거지. (조사자:아!) 자기의 묘를 쓰면서도 자기가 소망하는 말이야. 소원을 이루기 전에 날이 가물어가지고(조사자:아~.) 인자 주민들이 가서 말이지 파엿어 버려 그냥. (조사자:지금도 그래요?) 근래에는 그런 예가 없지.(조사자가 개입을 했으나 발음 불명) 그래서 그 위치를 그 묘자리 지금 가봐도 처음 장소 못찾아. (조사자:왜요?) 왜냐하며는 이게 자꾸 메웠으니까. 주민들이 말이지, 바위를 굴러다 묘에 쓸만하면 말이지,거기다 메웠어. (조사자:바위로?) 바위로 메웠어. (조사자:왜 묘자리만 쓰면 가뭄이 들었을까? 참 이상하네.) 그러니까 명산이지. (조사자:그럼 명산이에요?) 그럼 설화명산 아녀. (조사자:설화명산!) 어,설화산 명산이야. 그런 전설이 있고 하니까 명산 아녀,옛날산 아녀? (조사자:옛날산이에요?)

기린이라는 절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지금도 말이지 이 석축으로 해는 (조사자:석축이요?) 둘로 썬 게 석축. 둘로 썬 옛날 그 절터가 평지가 있어. (조사자:아~.) 평지가 있는데 그 석축으로 해는 저기기에 범위 크기가 말이지. (조사자:아 석축으로 범을 쌓아놨다고 호랑이를요? 아 범위가?) 범위가 방 한 칸 정도되니까,(조사자:방 한 칸.) 그러니까 약 평수로 따지면 두 평 내지 세 평 정도 돼.(청중들 개입으로 잠시 소란함) 그 절이 왜 폐쇄가 됐는고 하니(조사자:예.) 빈대가 하두 많아가지구 말이지 빈대 때문에 폐쇄가 됐다는 거. 들리는 얘기로는. 빈대 때문에 그 절이 폐쇄가 됐다는거. (조사자:빈대가 왜 많았는데요?) 옛날이니,지금은 약이 있으니까. 옛날엔 빈대니 벼룩이니 가정에도 우굴우굴.(조사자:얼마나 빈대가 많았길래 절이 폐쇄가 될 정도예요?) 사람이 못 견디니까. 어떻게 견디지 못하니까 인저 안 살으니까 폐쇄된 거지. 중이 못 견디니까. 인저 전설적인 얘기여.(조사자:음.) 그라구 내가 지금 얘기한 그 석축이 말이야 해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절에서 말이지. 어떤 사람은 옛날 절에 화장실 자리다 하는 사람도 있고(조사자:으응.) 아니며는 지금 식으로다 말이지, 냉장고 식으로다가(조사자:으응.) 무슨 물건 보관하는 그런 장소다,이렇게 얘기하는 거. (조사자:확실히 뭔지 모르는구나.) 그렇지 뭔진 모르지. 그런 위치가 있어.(조사자:으응.)

【역촌리 설화 4】

송악면 역촌리 노인회관, 1994. 6. 29., 최상은, 한혜인, 권민정 조사.

방상운(남, 76)

쌍둥이 남매의 성 쌓기와 온양 방씨.

역촌, 외암1 앞

그게 아니구요,배방성에 그게 원래가 그게 온양 방씨네 산이거든 그게. 그래서 그게 성을 쌓는데 쌍둥이였대요. 쌍둥였는데. 아들보구서 서울 갔다 올 동안, 딸 보구선 이 성을 다 싸라. 그래 서울서 오기 전에 그 성을 다 못 쌓으믄 죽구, 성 싸두 안 오믄은 아들이 죽구 이렇게 해기로 했다 이거유. 그래서 인저 아들도 올 때가 됐는데 안 오고 성은 다 쌓거든. 그러니까 저 어머니가 인저 아들 아들이 지게 생겼으니까 참 보리밥을 딱딱 한 걸 해가지구 왔어요. 오래오래 먹을 수 있게. “이거 먹구 싸라.”구. “이거 먹구 싸라.”구. 그래 그 먹는 찰나에 아들이 왔네. 그래서 그 여자가 인제 딸을 죽였다는 기여. 그래서 그 산이 인제 우리가 여기서 그때 그때는 노론·소론이고 즈끔은 뭐이 자유당(발음불명) 뭐다 당파가 있는데 그 당파 썸 땀에 우리가 썸 해졌거든요? 그 산이 우리 참 시조가 묻힌 산인데. 그래서 그 인저 참 우리가 온양 방가유. 그래서 인저 그 때 신 임금이 득세하구 구 임금을 때려 쓰릴 판 인디, 그러면 인저 우리는 두 임금을 섬기고 신 임금을 섬기라 이거여. 에이 그래서 인저 우리는 그래선 안 되겠다구 하구 방씨네가 다 헤어져버렸어유. 있는 사람은 다 아전이 되버렸구. 그래서 그러키 헤어졌다가 6년 전에 산을 찾았어유. (이후는 자기네 시조가 묻힌 배방산을 찾은 과정을 설명했다.)

송악면 역촌리 노인회관, 1996. 12. 16., 전정옥, 김태현, 배수아, 지화숙 조사.

방상운(남, 78)

효자다리 이야기

역촌, 외암2 앞

조치원에서 (조사자;조치원 알아요,저.) 조치원서 참 영감이 애덜 둘 낳고 죽었어. (조사자;어떤 영감이요? 한 영감이.) 한 영감이. 집을 짓고 살다가. (조사자;네.) 죽었는데, 개네들 하나는 일곱살 먹고 하나는 아홉살 먹었는데. (조사자;하나는 일곱살 먹고 하나는 아홉살 먹었다구요? 예) 근데 오뉴월 동짓달에 그 추운데. (조사자;오뉴월이 왜 동짓달이예요?) 어 참 동짓달에, 그 추운데 지 어머니가 저녁을 먹고선 건너가서 너들자라 하고선 이제 큰 놈이 안 자가지구 이놈 새끼 빨리 자라구. 봤더니 이렇게 그믐달께에 나가. (조사자;네. 어마이가?) 음, 그에 그러냐고 며칠씩 본께 또 나가거든. 이렇게 자는 놈을 깨웠어. (조사자;큰 아들을?) 지 동생을 깨웠는데. 어머니가 나가셨으니 쫓아가 보자고. 가만이 내다보니까 옛날에는. 이 냇가에다가 징검 징검 건너가는 다리야. (조사자;징검다리?) 근데 한 쪽은 그것두 없고 지 어머니가 맨발 벗고 얼음을 꼬고 거길 건너 가거든. (조사자;얼음을 깨고?) 깨고 건너가. 그래 그 이튿날은 이제 이젠 이제. 여러분들 이말 해도(괜찮아요, 저도 여자인데.) 그래 늙은이가 하나 있는데 그 방으로 들어가거든. (조사자;바람났구나,이 여자가.) 응 바람났지. 그래서 그 질로 왔어. (조사자;아들이 열반아서?) 열반은 게 아니라 그질로 와서, 그 이튿날 어머니가 동짓달에 발을 벗고서 거길 냇가를 건너가는데 어려웁잖아. 우리가 징검다리를 놔줘야지 았잖아.(조사자;네,어머 효자다.) 징검다리를 놔서 왔다 갔다 하다가 동네서 그걸 알았다 이거야. (조사자; 소문이 났구나.) 애들이 이렇게 놓는 거를. 그래서 거기다 다릴 놓구서, 다리 놓으면 이게 다리집, 이게 다리 위에 지붕 세우면(그렇지요, 지금은.) 도로가 돼. 거기다 똥고 하니 이것이 효자다리다, (조사자;어! 효자다리다. 지금 효자다리가 있어요?) 그

게 나온 말이야. (조사자;어디 있어요, 효자다리가?)조치원. (조사자;조치원에 효자다리 있어요?) 지금은 잘 났지.

【역촌리 설화5】

송악면 역촌리 노인회관, 1994. 6. 30., 이미진, 김명선, 최소정 조사

서석원(남, 75)

이지함이 죽게 된 사연

역촌, 외암1 앞

전날에 토정비결이 있어. 토정선생이 아산 현감으루 아산군이 아산, 온양, 신창 세개 합쳐서 아산군인데. 아산군으로 와있을때 하루는 날이 이렇게 청명한데 그 아전들이 뒤에 시험산에 가서 너 떠들어봐라 하니까 그놈아가 떠들어. 떠드니까 요그만한 다람쥐가 있는데 하나야. 참 아전이 또 한바퀴 돌고 또 떠들어 보니 역시 또 그러 다람쥐가 있어. 또 한군데가서 떠드니까 또 있어 그릇 세단지가 있어. 시험산에 인저 아전은 내려와 가지고선 ‘저 토정선생을 죽여야만이 그 금단지를 가질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캐. 어렵도 없지. 그래서 궁리하고 참 연구하고 그러다가 토정선생이 매일 아침에 진해삼기 진해삼기 그러거서 밤 생울 한접시씩 진해삼기 밤 한접시다 자셔야 진해 제도를 하신다. 매일 저녁에 그걸 자셔. 이 아전이 그걸 생각했지. ‘옳지 됐다.’ 버드나무를 말려서 고놈을 밤처럼 깎았슈. 밤인거 처럼 하야니 밤이지 뭐. 오매야 그놈 한접시하구 진해삼기를 더 독하게 해서 바쳤어. 매일 같이 먹는거구 아전이 매일 같이 주는거구 그러면서 죽는데 버드나무 먹구 죽었어. 그래서 토정선생이 아산에서 죽었어. 그 때문에 아산 아전이 제일 핫바리,상전 죽었으니까. 그리고 강원도 영월 아전이 최고. 그건 단종이 거기 가서 죽었잖아. 귀향가서 아무도 손을 안대는데 아전이 자기 입던 속바른 것으루 염해다 분구선 식구들 데리고 도망다구. 강원도 아전이 최고구 우리 아산 아전이 최 핫바리야 상전을 찍었으니.

【역촌리 설화 6】

송악면 역촌리 노인회관, 1994, 6, 29~30., 황재영, 이은화, 이재향 조사.

성과영(남, 86)

선비와 소금장수, 현명한 사또, 흥씨열녀비,

역촌, 외암1 앞

거 옛날 싱거운 이야기나 한마디 할까.(조사자 일동:야,신난다.) 허허헛 옛날에 선비 한분이 있었어.(조사자:예) 뒷집이 살고 앞집이는 소금장사는 장사꾼이 나쁜 사람이여. 그러믄 선비 집이라는 건 가진 것이 실없지. 언제나 누가 뭐였든지 고통을 받는 겨. 어렵지. 옛날이는 굶기를 밥먹듯하고 울었대. 그래 이게 근데 장사하는 사람은 돈은 좀 모으믄 엄청 이 날껴. 인저 잘 해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애덜은 선비집의 애덜은 노르딕히 해에 해가지고 “아버지 웃해줘요.” “어머니 밥 줘요. 떡도 좀 해줘요.” (조사자 :웃음) “먹고 싶어 못 견디겼어요.”

아 이 가증스런 노릇이지. 가진 건 없지. 몸 달 것 아녀? 그러니께 그 부인이 영감 선비보고 한 얘기여. “영감, 그거 선비 노릇하면 누가 선비라고 대우해주며, 대우해주른 누가 선비라고 밥 맥여 준다우? 그러니께 그 앞집의 소금장수는 장사해도 얼마나 잘 살우? 우리도 애들 좀 맥여 살릴라문 이런 일 저런 일두 해야 할 거 아뉴?” (조사자:그 부인이요?) 아내가 말하는데 뭐 나쁜 말이 아녀. “그것도 그렇소. 당신 말하는 것도 동감인데,내가 선비라고 책만 들여다 보고 앉아 있지 뭘 하겠소?” 그러니께 “내가 소금장사하고 의논해 봐서,나를 데리고 땡기문서 알리켜 주면 아 내가 소금장소하겠노라.”고.(조사자:아,그 선비가요?) 응,그렇지. 그래서 인저 그 선비가 소금장수를 찾았어. 그러니께 “아,선비님께서 웬 일이지유?” “아,자네 좀 만날려고 왔네.” “뭇니까? “아,나는 자네 좀 따라다니면서 장사 좀 하면 안 되겠나?” 아 양반이 그전에 장사는 안 했지,고대 죽어도. “아,왜 안 되요? 뭇니다.” “그럼,얼마나 뭘 준비하른 되나?” “우선 밀천이 작게 드는 장사인데 지게 하나만 장만하고 소금 뿔 말값만 가지므는 아 소금 짹어지고 대니므니 먹은 건 생깁니다.” “그러? 그럼,나 좀 데리꾸 땡기며 알리켜 주게.” “아, 꾸며 가지고 나오슈.”(조사자:꾸며 가지고만 나오슈. 히힃.)(일동:웃음) (발음불명) 맨드러가지고 찾아왔어. “그럼, 갑시다.” “워디로 갔겨?”냐니께 (발음불명) “소금 굽는데 가서 우선 소금을 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갑시다.” 가서 인제 소금장사는 대체 준비도 했고,입장이 다른 사람이니께 한 땡말 짹어졌는데 이 놈의 선비는 소금 두 말을 짹어졌는데 이것도 당체 갈 수가 없어. (조사자:힘들어서요?) 무거워서. 지게를 처음 질머지니께 그럴 거 아녀? “아 당체 난 못 따라갈 거 같다.”니께 이 놈의 소금장수는 “애 선비님인가 뭐가 얼른 따라오라.”고. “이러다간 밤이도 못 가것다.”고. “얼른 따라오라.”고. “아이고 이 사람아,죽도록 그러니께 걸어도 자네는 못 따라가겠네. 이걸 어떻게 하나?” “아, 그래도 힘을 내서 오슈.” 그러니께 학생들이니께 내가 이런 얘길 하는 기여. (조사자:아,할아버지 너무 재미있어요. 얼른 얘기 해주세요. 웃음) 아,그래서 가니께 양쪽 길이 이렇게 났어. 이 거 소금장수는 “아,이거 양쪽 길이니까 각각 갈라져서 갑시다.” 아 그렇지. 한쪽 길로만 가서 쓰졌어? “그것도 좋은 말일세. 아 나는 자네 시키는 대로만 하겠네.” “아,그러믄 이쪽 길로 가실라우,바른편쪽 길로 가실라우?” “아,내가 처음 온 사람이라 알졌나? 어떤 길인지 잘 모르니께 자네 지시하는 대로 하겠네.” “아 그러믄 바른쪽 길로 가시오. 거기 가므는 큰 동네도 많고 부자도 많고 그래서 소금장사도 잘 되고 그런디께 그리고 가쇼.” 그럼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럼,길을 인도해줘서 고맙네. 내가 가서 돈을 벌면 그 신세는 아무 때 갚아도 갚음세.” 지게를 짹어지고 가는데 가니께 동네가 나와야지,세상에. 아,요놈의 소금장수가 그짓말을 한 거여. (조사자:어머,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 사람이 거기 하나도 안 사는 디여. 워 이런 일이. 해가 너웃너웃 넘어가는데 찢찢 매고 있는 판인데 저기 불빛이 와서 대더라. 그래,‘사람 사는 데 같으니께 거길 좀 가봐야 겠다.’ 그래서 어칠뒤칠 그 불만 향해서 가니께 나무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아 그 불만 향해서 가는 기여. 얼어졌다 잦혀졌다 해가면서 가 보니께 외딴 집인디,사람사는 집이여.(조사자:네.) 똑똑 주인을 찾으니께 주인이 나오니 “아,웬 양반이 밤에 이렇기 밤이 이렇게 오셨슈?” “아,나는 소금장사하다가 여기를 왔더니 인가도 없고,해는 넘어갔고,갈 디도 없고 그래서 여기 인가를 찾아왔는데 하루 저녁 좀 채워 주시겼소?” 그러니께 “아 들어시라.”구.아,방으로 모셔들이고 하더니,“아,오죽 혼났 겠느냐?”고. 아 “여기다 발을 닦으라.”고 대야다 물을 갖다주고 세수혀라고 세수물까지 떠다주고 아 잘 혀. ‘아,이 사람이 소금장수,자러 온 살람을 이렇게까지 한다면은 너무 참 고마운 일이여. 그런 대우를 밥상도 들여오는 걸 보니께 맘만큼이나 차렸어. 아, 잘 차렸어. 자기 선비는 자기 집에서 먹어 본 음식은 아녀. 그렇게 훌륭한 게 이런

산골에서 나오냐 이기여. 아 밥도 잘 먹고,게다가 인저 담배도 그때는 입당배,이렇게 찌우러 찌우러 도매¹²⁾에다 쓰러가지고 썸지다 땡겼거든.(조사자:예.) 옛날 얘기에 그랬어. 그거를 한 썸지 담아주면서 “아,담배 좀 피라.”고. ‘아,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 할 수 있나?’ 고맙기가 한없이 고마워. 자기 혼자 기다렸다,‘이렇게 고맙게 하는데 주인이 죽으라든 죽는 시늉이라도 내가 해야 겠다.’(조사자:혼잣말로요?) 응,혼잣말로 했는디 그게 아마 그 소리가 나갔던 모양이여. “아,손님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니라.”고. “나 혼자 한 말이다.”라고. 아,조금 있더니 웬 자루를 하나 가지고 들어와, 이만한 자루. “거 손님 여기 좀 잠깐 들어가실래유?” 그러,자루 속으로. (조사자:자루 속으로요?) 응. “거긴 뭐라 들어가우?” “여기 들어가면 좋은 일이 생기는 딴께 들어 갈라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인한테 이렇게 후대를 받았는데,‘설마 나를 죽이진 않겠지? 자루 속으로 들어가면 좋은 일이 있단께 설마 거짓말은 않겠지?’ 아,그래 자루 속으로 들어갔어. 아,그래 대가리 꼭 꺾매니까 꼼짝 못 하지 았어? (조사자:예.) 한 놈 보고서,“아,이거 들러 메라.” 무슨 물건이나 둘러메듯 둘러미구 한 놈은 앞에 가고,한 놈은 뒤를 따라가는데 “저 방죽까지 가자.” (조사자:주인이요?) “방죽까지로 가자.” 방죽이라는 거 있잖아. 그래서,‘이제 꼭 죽었구나. 이 사람들이 참이 잘 하길래 질래 잘 할 줄 알었지 자루다 집어 넣어가지구서 물에다 집어 던질 줄 누가 알았나?’ (조사자:네.) 그래 애걸복걸 살려달라고 하니 들은 척도 았고 떡 가더니 아 이 소나무에 달어. 소나무가 큰 놈이 방죽 가에 섰어. 가지가 죽 버더나갔는디 한 놈은 끈나풀을 올리고 한 놈은 올라가서 그 놈을 잡아대려 땡겨 가지고 거기다 붙들여 땡어. 붙들여 땡으니 대롱대롱 그 매달려 있을 거 아냐? (조사자:네. 웃음) 그게 참 묘한 얘기지. ‘꼭 죽었구나이젠.’ 슬쩍만 하려는 물로다 텀병 빠져 죽는 기여. 이거 어쩔 수가 없어서 애걸복걸하는디,그 놈들은 다 갔지. (조사자:네.) 집으로 갔어. 그렇게 매달아 놓구. 울고 북고 웬통 신세 한탄을 하구 ‘내가 죽을 걸 생각을 했느냐’구. 별짓 다 하고 있어, 죽게 땡으니까. 그럴꺼 아냐:(네.) 밤새도록 잠 한숨 잘터? 울고 있다가 식전에 알고 보니까 그래도 한 구절 외가면서 별짓 다 하고서 있는데,그때 거기서 호랭이 굴열이여. 호랑이 얘기를 하라고 해서 내가 (조사자:아 네,거기가 호랑이 굴이예요?) 아냐,호랭 구열. 그 놈들이 거기 와서 사방이 흩어져 가지고,사람은 거지방 여기 사람은 못 사는 디여.(조사자:아.) 아 무슨 소리가 나면서 그 냄새가 나졌지,사람 냄새가. 인내¹³⁾가 나고 하니께 ,이상하다고 호랑이란 놈이 아마 몇 십 마리 모여 들었던 모양이여.(조사자:일동 웃음) 아 그래서 보니까,나무에 가서 사람이 하나 매달려 있는데이걸 차서 밥을 해야겠는데 아 이 놈이 여간해서 다야지.¹⁴⁾ 아,이 놈이 펄쩍 뛰어서 올라가서 인제 그 놈이 물고 잡아 내리려고 올라가면 나무가 높았던지 홀 떠서 그랬던지 그냥 물로 텀병하고 들어갔구.(조사자:호랑이가 떠갔구 ……) 아,그렇지. 뛰어갔구. 펄쩍해서 넘어가니까 그 물쭉 들어간 게지.(조사자:아,진짜. 웃음) 텀병텀병 텀병 들어간 것이 수십 마리가 빠졌어.(조사자:일동 웃음) 호랭이가 요즘이는 읊지만,그 어떤 대학교수가 지었어. 그래서 이 선비가 밤새도록 잠 한 숨 못 자고서 낚나가 있으니께 이 사람들이 식전에 흰하게 밝아오니까 쇠갈코리 길게 한 바지랑대 같은 놈을 떡하니 가지고 와. 오더니 “아, 손님 애 썰소,밤이.¹⁵⁾”(조사자:어머.) 그러더니 죄 끌러와. “얼마나 혼났느냐구,밤이.” 그래니까 밤이 혼난 것이 아마 몇 십년 산 거보다 고생은 더 했겠지.(조사자:네.) 죽겠 되었으니까 “많이 혼났으니,그 바람에 호랭이 몇 십 마리 여기 잡았으니 그 놈 가족 비끼면¹⁶⁾ 약차 이만저만 돈이 생길거요. 그러니까 내 손님을 일부 떼 들리리다.” 밤이 잠 못 자고 애쓴 걸로.(조사자:아,네. 웃음) 그래서 호랭이 꺾질을 베껴서 팔았는데,아 소금짐보다 더 많아, 돈이. (조사자:네,와.) 아 ‘이제 소금장수 안 해도 인제 호랭이 꺾질 베긴 거 가지고 가서 부자가 돼서 인제 거드름 피고 사

는 판이여. 그때 그 소금장사님이 그 소릴 들었어.(조사자:예.) 아무개가,그 선비가 지가 길을 인도해 주는 대로 가갔구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벌었나 알기 위해서 갔단 말이여.(조사자:네.) “내가, 선비님 그거 돈 많이 버셨다쥬?” “아, 자네 덕분에 많이 벌었네. 돈 많이 자네 덕분에 벌었네.” (일동 웃음) “그래, 워떻게 했습니까?” “길에서 집두 없구 어딜 가니까,그래 방황하고 있는데 마침 빛이 있길래 거기 가느라구 자빠져가며 엎어저가며 가시 쫓러가며 그래 갔더니 다행히 나를 후대를 하더라.그래서 거기서 이력저력 잘 먹고 잘 참이 됐는데 나를, 자루를 들고서 자루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넣고서 연못에 갔다가 매달더라. 그러니 죽겠으니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있느냐? 을울고 어찌고 하는 걸 호랑이 놈들이 전부 모여들어서 나를 채 갈라고 뛰다가 빠지고 뛰다가 빠지고 해서 수십마리 잡았느니라구. 그래 가지고 그 놈 노봐줘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다구.” 그러니까 그 놈이 워찌키 그렇게 돼나 “그럼, 내가 가서 벌어야 되겠다.”구. (일동 웃음) 이 놈이 소금장수 놈이라 심세가 좋지 못하게 먹은 놈인데,그런디루 보낸 놈이니까 그래 이 놈이 갔단 말이여. 가니 뭐 먼저 그 사람이 일러 준 대로 고대로 했어,고대로 그렇게 했어. 자루 들어간 말 안 해도 들어가구. 그렇고 그걸 갔다 매달어 놔. '뭐 이거 돈 버는 거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울 필요도 없다.'고 하고서 가만히 매달려서 잠만 쿵쿨 실컷 잤단 말이여. 아 식전에 이 사람들이 갈퀴리 들고 나와보니께 호랑이 한 마리 읍네. (조사자:어. 잠만 자갔구요?) 잠만 잤으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는지 알어? “너 이 놈,니까잔 놈한테 호랭이가 온다더냐? 너 이 놈 맛 봐라.”하구서 떠서 연못에 집어던졌다 말야.(조사자:어머. 웃음) 그래 그 후 선비는 그대로 잘 왔디아. 그래서 마음을 옛날부터 잘 먹어야,옛날 얘기라도,잘 되고 맘 잘 못 먹은 사람은 되지 못 한다는 거여. 근데 그러.(조사자:너무 재밌어요. 웃음)

이번에 옛날에 지금은 저 학상들이 가서 시험을 치지믄,옛날 구한국 때는 인저 다 경상도 전라도 거서 하나씩 모아들어 가지고, 모아가지고서 과일이 원제 과거된다하는 것을 여기저 시험 날짜 내득히¹⁷⁾ 그렇기 내났는디 그라믄 각처에서 하나 둘 모여 들어가지고 물리는 디는 선비가 한꺼번에 몇 십명씩 물리게 돼요. 과거보러 가는 기여. 그럼 넉넉한 사람은 그때 말타고 그때 말끄등이 데리고 또 넉넉하게 먹을 거라도 후하게 인제 가지고 인제 가지만 촌이서 어려운 샌님 아들은근근히 뭐 먹을 게 있나,등어리다 짐 하나 싸가지고서 어깨다 짊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는기여.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저기 경상도 그 문경 거 세제고개라 허는 디야 거가. 충주,경상도 거 고개가. 예 거기 왔는디 경상도 선비덜이 왔는데 한 이십명 모 모으게 됐어. 그러니까 서로 앉아서 인자 과거보러간다는 얘기, 공부는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런거 하구서 같이 인저 질을 같이 가게 됐어. 그래도 침 만나던 사람이지만 역시 다 동행이 되어가지구 과거를 보러 가는 기여. 충주 어디 갔는데 거기가 현감도여. 현감은 옛날에 지금 군수 같은데 현감도라고 하면 그때 육품이여, 육품. 육품이라고 하면 젤 알지. 젤 알을꺼여, 아마. 현감이, 현감도여. 그래도 지금 군수 대접하듯 하는 거여. 거길 갔는데 날은 저물어 가고 칸칸¹⁸⁾,갈 수가 있어야지. 요새 말하면 여관이지. 그땐 객주집이라고 하면은 뭐 별거 다 받아들였는 디여. 그래가지고 지금의 여관 같으믄 이렇게 도시에 들어앉았기도 많이 하지믄 그땐 길걸 갖이다 지어가지고 손님들이 받아 들었어. 그래 거기 들어가니께 인저 허 한 군데 들어갔지 뭐. 한 봉룻방,보룻방이라고 해. 그 전인 한 이칸¹⁹⁾ 방이나 서칸²⁰⁾ 방 같은 거, 여럿이니께. 거기서 저 저녁을 먹고 그런게,고기 얘기가 재밌는 게 있어. 무슨 어 한스럽게 (발음불명) 그저 밥 먹는데 물을, 큰 대접물이 있잖어. 거기다가 가지고 나오는디 보니께 머리가 이 방덩이까지 죽 이렇게 내려온 처녀 그러니까 한 우세소리를 하고 한 싱거운 사람이 있겠지. 그cke 중매쟁이 딸이지 별건 아니여, 중

매쟁이 딸이르는 그때만 해도 별 건 아녀. (조사자:옛날…….) 뭐라고 하나든 우스개 소리 잘 하는 놈이 “내 며느리 되라. 저녁이 네 방이 가마.” 그런 우스개 소리하고서 잘라고 하고 옷을 끌르고 버선을 벗고,그때 버선을 신고 다니니까 또 그러니까 거기 어떤 사람이 있다가 “아, 당신 이리이러 해서 츠녀하고 말 트더니 가도 앓고 이게 뭐냐?”구. “아 참, 잊어먹었다.”구. 그러구서 다시 친구서 나가더니 조금 있다 들어와. “아, 왜 그새 왔냐?구 하니께 ”말을 안 들어 왔다.“구. ”그럼 어떻 할 거냐?구. “죽었다.”구. 죽었다는 기여. “아,멸절한 사람을 죽였다니 이게 무슨 노리냐?”구. “아,말 안 들으니까 죽였지.” 애 참 날이 밝기가 무섭게 야단 났어. “간밤에 내 딸년 과년한 내 딸년이 있는데 죽어버렸으니 암만해도 이 과객 중에서 한 일이라.”구. “그러니까 당신네들 고백해서 자수할 때까지는 사또한테 고소해서 잡아 전부 잡아 올른다.”구. 아 그러니까 하나가 그라고 나서더니 “거 내가 헛 일이니께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라. 나나 고소할티면 허라.”구. 그러니까 그 사람 잡아갔을 꺼 아녀? (조사자:예.) 잡아가니까 현감이 떡 앉아서 요새 말하면 군수가 앉아서 그 때 사범·행정을 다 쥐고 있을 때여. 군수가,“으쎄 보아하니 선비고,또 과거 보러가는 선비가 그런 나쁜 짓을 했을 수가 있나?” “그렇기 됐습니다.” 부인도 시인 도 안 해. 그냥 사또 묻는대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혀고 마는 기여. 그거 참 사또가 여러가지 죄인을 취급해 봤는데 이제 그런 사람은 참 봤단 말이여. 그러니까 시인하는 법도 부인하는 법도 읊어. 그거 “그렇소, 그렇소.” 이게 대답이여. ‘안 되겠다.’구, 밤새도록 궁리했어. ‘이게 아무래도 까닭이 있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죄인은 아니다.’이기에. ‘달리,요새 말하든 수사방향을 돌리야겠다.’구. (조사자:웃음) 거기에 토인²¹⁾ 하나가 있어. (조사자:토인이요?) 응. 사또 밑에 토인이라고 하면은 요새 말로 아 군수 앞에 지금은 그런 게 없지. 있는데 아주 영리하며 어린앤데, “너 오늘 너 들어왔던 그 놈 봤지? 그 사람 보통 맹랑한 사람이 아닌데그 심부름꾼,(조사자:심부름꾼이요.) 하도 용해서 애들인데 “너 오늘 너 그 들어왔던 그 선비 보았지? 이거를 근본을 아주 캐 낼라든 여간 똑똑한 놈 아니면 못한다. 그러니 니가 가서 감방에 들어 보낼테니 그 사람 뭐 뻐에 그렇게 되었는지 좋게 알아서 나에게 전해라.” “아,사또 분부라면 하겠다.”구. 아,들어가서 한 방에 앉았네. 아,그 과객이 하는 말이 “너 보아하니 통인 같은데 뭐 뻐에 들어왔니?” “우리 사또 요강을 이다가 잘못해서 켜어요.” 그러구서 백방으로 물어도 당채 대답하는 법이 읊어. 그래 가지구 새벽이 돼가지구,“너희 사또를 평할 적이 무어라고 평을 하느냐?” 하니께, “우리 사또흔 지금 명관이라구 아주 자자 합니다.” 아는 거 많다는 거지. 훌륭하다는 거지. 그 얘기가 그 얘기에. 그러냐구. 그거여. 그거 한 마디 묻고 말어. 그래서 이제 가서 사또한테 변명을 했겠지. “이러이러한 답밖에 못 들었소.” “그러?” 밤이 사또가 자기가 나가가지구서,밤이 이숙한데 옥사쟁이가 인저 자물쇠를 가지고 있는 기여. 그때 옥사쟁이라고 옥을 맡을 사람 있거든? 그 사람한테 열쇠를 달라고 해가지구 열쇠를 자기가 열고 그 죄인을 자기가 들어내왔어. “너 바로 얘기해라. 내가 이걸 조사하는데 너무 힘들어 못하겠다.” 이거여. “그러니까 대강 일러줘야 할 거 아니냐?” (조사자:사또가요? 히하) 응,사또가. 그래 인저 “아무 것도 말씀 드릴 건 없고 실물이라건 여기 하나 있시오.” 거기서 인저 허리띠서 허리띠다가 아 (팔로 칼 길이를 가늠하면서) 이런 칼인데 내 놔. “그 허리띠다가 그 이 칼을 내놔. “이겁니다.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하시오.” 아니, 이 놈의 거 가지고 또 밤새도록 궁리를 해봐야 어떻게 하는 기여,이 칼가지구.(일동 웃음) 그래서 아 그때는 아침에 날이 환하게 밝으면서 그때는 아전들이 말이야, 하인들이 전부 와서 사또한테 문안드리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래 들어 왔는데 떡 인사 받고 난 뒤에, “너 니덜 중앙에서 정부에서 인간의 칼이라두 좋은 놈이 있으믄 그놈 추 추 추²²⁾ 저기를 한다고 그래서

쓸만한 게 있으면 저 상을 내린다고 할테니까, 좋은 칼이 있거든 일리 가져오도록 해라.”
 가 일러라 그말이야. 그 사령이니 뭐니 죄다 일렀는디 그 그야 보화로 내려오는 그 어떤 그
 가보라는 게 있어, 가보라는 게. 옛날 무관의 집이라든 칼 같은 게 그런 게 있거든. “그런
 거 저런 거 뭐 해서 죄다 담어라. 그러구 합격해 봐야 안다.” 그에 답아 놓구,합격은 무슨
 합격이야? 그냥 놓여 있는 거지. 그 이튿날 관족들 다시 불러 가지구 “이 칼이 하나 합격한
 게 없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도려줘야 할텐디 어떻게 누구 칼인지 알 수 있니? 본인이 와서
 찾아가라고 해.” 이그 사또가 하는 분부라든 안 할 도리가 있간? 와서 제 칼 제 칼 제 집어
 가는데 한 세 자루가 남더라. 그런데 두 놈이 와서 한 자루씩 잡으니까 한 자루가 남어. 보
 니께 그때 자기가 봐 두었던 칼이여. “저거 어째 임자가 안 나왔니? 지이 끼리 공론해길,
 “이거 아무래도 아무개 칼 같애.” 지이끼리 공론하길 아무개 칼 같어. 백정놈이여.(조사자:
 백정요?) 백정,백정,소잡는 백정. (조사자:예.) 그래서,“알았다.”구. (조사자:그게 백정칼이예
 요?) 어 그래서 “알았다.” 그 칼 임자가 누구라는 거 알았거든? 그 놈들이 하는 말 듣고 알
 았어. “당장 잡아 오너라.” 사령 보고. 사령은 요새 순사 같어. 잡아다 놓고 몇 대 때리니까
 가짓 거(웃으며) 확확 불지 뭐 별수 있어? (조사자:예.) “너 어째서 그 여자를 직였냐?” “항
 상 그 여자를 마음에 뒀는데 저 같은 천인하고 혼인을 하겠습니까?” 주막쟁이하고 그에 칼
 쥌이하고는 한 등급은 차이가 있어. 혼인을 안 할 테니까 백년은 꿈에도 못 꾸거구. 그 여
 시를 보더니 내 그날은 과객들이 많이 들어 온께, 옆에 그냥 붙어가지구 참석을 한다 하더
 라구. 그 저 그래서 말 안 듣더니 죽였지 까짓거. 근데 경황 중에 칼을 못 뺐지. 그러니 수
 완대로 확 집었지 뭐. 즈 이 이랬던 사람이 얼마나 뜻이 깊구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 이거
 여. 사또가 그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벌벌 빌었어. “아이고 과연 훌륭한 분이려.”구. 그러구
 서 과거보러 가는데 “내가 실력은 없지만 내가 취재할테니 그렇게 하라.”구. 근디 그해 둘
 째 당숙이 그때나 이때나 때는 때니까(조사자:웃음) 당숙이 그때 험 뭐냐 저 시험보는 심사
 원이여.(조사자:예.) 그러니까 편지 한 장 닦아 주면서 “이거 갖다가 이 양반 드리믄은 하숙
 비 뭐 다른 디 안 쓸거라.”구. 그러니 이렇게 줘서 글리 가져가니까 자기 당숙이 천거한 사
 람이니께 으지간 하려 하구서 사랑이다 거하게 두구 그가 봐 줬어. 같은 거래두 봐주는 거
 하구 안 봐 준 거하구 다를 티지. 지금 시험두 그럴 티지. 뻔헌 거지. 그래서 그가 크게 됐
 다는 겨.(조사자:네.) 해 본 과거하고. 그런 큰 배짱을 가졌기 때미. 보통사람 같으면 “안 죽
 었습니다.” 이래야 하지. “내가 언제 죽었느냐?” 이럴 거 아냐? (조사자:네.) 그럼 냉큼 해결
 책도 안 가려져. 그러고,그때 그 현감이 그만큼 훌륭한 분이였기 때미 그걸 알아낸 기여. 지
 금도 판·검사가 그런 훌륭한 분이 있어야 억울한 일이 안 생긴다구.(조사자:맞어요.) 할아버
 지 이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억울하게 잘 못된 사람이 좀 많은가. 지끔두 억
 울한 사람이 많어요.

홍씨라구 지금 저 그이가 아들하나 낳구 남편이 병으로²³⁾ 갔어, 낳구. 그때는 개가하랴구
 돈으로 묶어가구 그럴 때여. 자루다 넣어 데려가구. 그 개가법을 막아서 개갈 못허게 됐어,
 이조 때에. 그런데 거 인제 안 가니까 묶어가구 저기 혈틴디, 거 나이 젊고 얼굴 반반허고
 그러니까 그걸 염려를 해서 아들 몇 살 되면 되면서 그 저 병어 병어리가 났어, 어머니가.
 그래서 그 아들을 키워가지구 손자보아 가지구 손자 돌날, 그때서 말을 해지. (조사자:스스
 로 병어리가…….) 참 병어리를 했다구 그제. 그제 무슨 병어리 된 것이 아니라 그거 병어리
 아니구, 얼굴 반반허구 그러니까 만만하거든. 어린애 하나 데리구 있으니까 만만하잖어. 아

그 보쌈에 집어 가지구, 보쌈이란 그거여. 묶어가거나 이따가 너가지구²⁴⁾ 막 이 저기 매구서 도망가는 거. 까딱 살지,어쩔 수 없이. 거기서 시집살이 허는 거 같이 살게 되어. 그여 그거 당할 깨배. 그래서 거 어린애 하나 개를 속으로는 그 자기는 병어리 노릇을 했는디 거 거기서 손잘 뒤가지구서, 둘 때 말을 했다지. 그 효부 효부 저 가지 열녀 열녀 열녀비를 탔테여. (조사자:아 이쪽이요, 홍씨?) 응 여기 배방면인데 요기 넘어서…….(조사자:할아버지, 이거 이제 다 들으신 얘기에요?) 응. (조사자:다 들으신 얘기세요?) 그거는 이저 들은 얘기지. 그래서 그게 그게 말이 그래도, 쉬운 게 아니지. 으뚱게 그쪽에 어 으뚱게 세 살 먹은 늙, 개가 장가들어 가지구 어 손자까지 볼때까지 어떻게 말을 았구 살았느냐 이거여. (조사자:진짜.) 말 했다간 저 늙들헌데 때갈까봐 말여 그러지. 그니까 아들도 못 키우구 그때. 그래서 그 집을 유배하기 위해서. 그래 그런 일로만 있었지. 그때 그때는 그 효자, 충신, 열녀여 세 가지. 효자라는 게 인제 아까 말 걸이 아버지가 곧 그 빠져서 바로 돌아가시게 돼 대신 죽는 게 정말 그게 효자거던. 거 없는 일이니까. 열녀는 알아. 충신은 나라님만을 즐겁게 해야지, 자기 몸이 무거져도 챙기는 거 충신. 그 열녀는 거 남편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희생하구, 버리는 거 열녀. 뭐 그렇지 뭐.

【역촌리 설화7】

송악면 역촌리 노인회관, 1994. 6. 30., 이미진, 김명선, 최소정 조사

원종옥 (남, 76)

이무기가 용된 이야기

역촌,외암1 앞

내가 하는건 역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여, 옛날 고담 애긴데 한마디 해 줘야지. 옛날에 한 사람이 어느 마을에 사는데 굉장히 참 어렵게 살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일곱 식구가 자식이 7남텐데 나무를 해먹고 산다 이거야. 그래 나무를 한 짐을 해주면 좁쌀 한 되를 얻는데 그거가지고 살구 또 나무를 해가려가고 몇 년을 그렇게 하니까 하루는 싫증이 나서 나무지개를 다 때려부수고 한 번 없이 가는 거여. 어디루다 한 번 없이 가는데 가다보이까 날이 저물고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지. 옛날에는 벼길²⁵⁾은 사람 하나 겨우 지내는 길이지 저쪽에 상대방이 오면은 이 사람이 옆에 비켜서야만 사람이 가. 고론데 사람이 비키는데는 흠이 있어. 그런데 가 있더라구. 그런데 고기서 그렇게 그 그래서 거기서 가만히 비켜서서 은신을 하고 있으니. 지나가는 제 보니까 어 좋이라고 하나? 뭐 초롱불이 하나 들렸어. 그 이런 산중에 사람하나 구경 못했는데 왜 사람이 지나가는가 가만히 있으니까 얘기 소리 들을 만하는 고기로 들어가니까 뭐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 놓더라고 말이야. 기거를 하면서 빌더라 이거지. 가만히 들으니까 ‘제발 사람 좀 하나 만나게 해달라.’구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토인 선비가 가만히 계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불빛이 보이니까 떡시루를 갖다놓고선 떡시루는 말여 이만한 떡을 말야, 있단 말이야. 그래 배는 고프고 말이야. 그렇게 해놓고 가는데 선비가 가서 떡을 집었어. ‘가만히, 저 사람이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가?’ “여보셔, 여보셔.” 불렀거든. 불르니까 초롱불 들은 아가씨가 여자가 누군가 했더니 이 “웬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비느냐?” 물으니까 그럴 일이 있다구. “사렘이나?”구. “나 사렘이다. 우리집에 가자.”구. 그래 따라서 가는데 조금 내려가더니만 큰 기와집에 들어가더라구.

그래 산중 그런 집을 못 봤는데 큰 기와집이거든. 그래 들어가니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 그런데 그걸 먹구서 있는 도중인데 낮에는 뭘 하느냐 하면 낚시대를 하나씩 하라구 몸종을 시켜서 저수지로 다 안내를 한대니 그 집이 본래 만래 보름치마 하는데 통통바위가 예 있고, 그 저수지가 있더라구. 거기다 낚시를 하라구 그래. 낚시질 하다가 그럭저럭하다 보니까 한 십여 년이 넘었더라구. 근디 참 돈도 많은 거 같구. 그런게 가만히 하루는 낚시질 하구 선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고향생각이 나거든. 가만히 이 사람 생각하기를 ‘내가 고향에 갔다온다고 하면은 저 부인이 돈 좀 주겠지.’ 하는 생각을 했어. 그날 저녁 와 가지고 집에 와서 “내가 고향생각이 나서 고향 좀 갔다어면 어떻겠소?” “갔다오시라우.” 생 그짓말이야. 하하 (조사자:재밌는데요.) 그 이튿날 갈려구 채비를 챙기는데 그 집에 말이 좋은 게 있구 그러는데, ‘말이라도 좋은거 하나 주겠지.’ 그 말 중 제일 비러먹은 당나귀를 하나 주면서 “이거 타고 오세요.” 하는 거야. 그래 아무 것도 주는게 없어. 참 섭섭하더라 이거지. 어쨌든 그 말을 타고 산 고개 고개를 넘어서 자기 고향 땅에 와서 이렇게 둘러본게 쑥대밭이 됐어. 자기 아들 이름을 들으면서 “부인, 아무개네가 여기서 살았는디 어디로 갔느냐?” 구 말 이어. “여기 동네가 있었는디 어떻게 됐냐?” 구 말이야. “이무 저기 짝 쓸었다.” 구. “그럼 아무개네가 죽었느냐?” “저기 저동네 그 사립네 집입니다.” 그때서 이 사람이 말여 생각이나. 아 그간 그 그 동네로 가서 아무개나 찾으니까 아들 딸이 구름같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같이 만나서 집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해마다 돈을 말이어 수 없이 보낸다 말이어. (조사:그 여자가요?) 그러니 모르지. 자기 남편이 보내는지 알아. 그래서 이 사람이 식구들 모아놓고 사실말을 했어. “이래이래했는데 내일 시방 이래이래 해서 산다. 그러니 내가 또 가야 옳으냐. 이놈의 집이 살만 하니까 그냥 집에서 살아야 하나.” 아 식구들이 은인이나가야된다 이거여. 가서 가서 애길하고 오던가 가야지 무슨 말이나 다시 거기로 왔어요. 그 말을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집에 가려고 한 고개를 넘어서 아 뒤에서 말이야 그 “야!” 하고 소리를 친다 말여. 자기 이름 아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누구야?” 고 말을 타고 뒤돌아 보니, “누구야?” 하고 소리치니까 “내가 너의 몇 대 조상의 할아버지다.” 말야. 이저 뉘 시냐고 하면서 말하는데 “너 가면 죽어. 죽으니까 내 하란대고 꼭 해야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으로 가면은 그 여자가 아프다고 핑계로 앞으루다 드러누워 있을 게다. 그래 그랬을 적에 그럴건데 그랬으면 말이어 밥 차려다 줄꺼여. 그래서 그 밥을 인저 먹을 적에 상을 차려다 주고서 도로 옆으로 다 얼굴 안 보이게 비스듬하게 드러누울 꺼다. 그러니까 그때에 밥숟가락 떠 가지고서 너 먹으면 너가 죽고 예방하려면 침을 씹어서 뱉어서 상에다 놔라. 그러면 그게 죽는다. 그래 그게 사람이 아니다.” 이거여. 인저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생각하고 있는디 그런 소리를 한다 이거야. 몇 대 할아버지라 하면서. 그래 사실 좀 그럴까 하고 거기서 들어가서 들어가니까 역시 드러누워 있더라구. 그래 있으니까 밥상을 채려다 주는데 밥 상을 채려다 주고 또 그대로 드러누워 있거든. 거 밥숟갈 한 숟갈 떠가지고 ‘이걸 먹어야 옳으냐? 안 먹어야 옳으냐?’ 이러는데 떠는데 말이야. 떠는데 가만히 있는데 ‘암만 짐승이나 뭐나 말이지 내 가족을 잘 살게 해주니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구 한참 있다가 그냥 밥을 먹었지. 그랬더니 탁 뒤를 돌더니 “당신 그 밥 어쨌려구 먹어?” “아니 차려다 준 밥을 먹으라 했는데 왜 안 먹냐?” “당신 오다 무슨 얘기 들은 얘기 없느냐?” “그래 사실 예길 들었다.” 근데 그 여자가 얘기를 하기를 네 “그 산에서 얘기하는 것은 당신 조상이 아니고 이 산속에서 수 백년 먹은 여우다.” 그래 자기도 말에 실지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용이 되어 올라갈려구 이무기가 시방 도를 닦고 있는데 서로 시샘이 된 거지. 그래서 인저 그런 중이라구 그래서 저 그 여자가 하는 소리가 뭐냐문 당신 인저 집에

가라구. 그 금은 보화 같은 거 잔뜩 주면서 집으로 가라구. 가면서 뒤 한 번 돌아보라구. 그래서 저기 가면서 보고. 오가다 뒤에서 콧소리가 나서 보니까 저 연못가에서 용이 되서 올라가더라 이거야. 그런 애한테 맞는 애긴지. (조사지: 너무 재밌어요.)

라. 송악면 마을 4 (외암리)

1) 조사일정

1994. 6. 29., 최상은 기록

12시경 숙소인 역촌1리 노인회관에 도착, 짐을 풀고 인근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13시경 숙소로 돌아왔다. 조별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난 후 2조는 숙소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노인 세 분이 계셨으나 이야기를 꺼내기를 꺼리기에 조사자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했더니 세 분 중 방상운씨가 <쌍둥이 남매의 성 쌍기와 온양 방씨>를 구연해 주었다. 더 이상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아 14시 30분에 외암1리를 향했다. 민속마을로 지정된 탓에 고풍스런 瓦家와 草家が 즐비했다. 먼저 이장인 강희춘씨를 찾아 마을 유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듣고 설화산에 얹힌 <설화산과 이순신 장군 묘자리 쓴 이야기>를 들었다. 강씨의 추천으로 참판택으로 알려진 대가집을 찾아 이득선씨를 만나 예안 李氏가 외암리에 자리잡게 된 유래와 현재의 가옥을 짓게 된 경위, 민속주인 연엽주(蓮葉酒)에 얹힌 이야기를 들었다. 이 이야기 후로는 훈계조의 이야기로 일관했기 때문에 16시 30분경 숙소로 향했다. 숙소로 오던 중 외암리 입구 가게에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가게 주인 아주머니로부터 <도깨비 이야기>를 들었다. 다른 이야기는 없었으나 도깨비를 실제로 믿고 있는 것 같아 흥미를 느끼고 17시에 숙소로 돌아왔다.

1996. 12. 16., 전정옥 기록

역촌리에서 보완조사 둘째 마을인 외암리로 향했다. 이 마을은 민속마을로 지정된 마을이다. 참판택으로 유명한 이득선씨 집을 찾아가니 마침 손님이 있어서 20분 정도 기다려야 했다. 이득선씨는 효부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는데, 자기 큰 어머니인 <권덕상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 주었으나 사실 얘기에 그쳐서 자료적 가치는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집에서 직접 만드는 무형문화재 11호라고 하는 연엽주(蓮葉酒)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주었다. 오후 3시경 동화리에 들러 강완식씨를 만났으나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별로 채록할 만한 자료를 구연해 주지는 못했다. 오후 5시경 숙소로 돌아왔다.

2) 마을 개관

【송악면 마을4】

337-820 충청남도 아산군 송악면 외암리 1구

1994. 6. 29., 권민정 조사

오양골이라는 자연부락 이름을 갖고 있는 외암리 1구는 1988년도에 민속마을로 지정되었고, 1988년 8월 18일에는 전통 건조물 보존 지역 제 2호로 지정된 마을이다. 그래서 마을의 가옥은 모두 기와와 초가로 되어 있다.

마을의 유래를 보면, 15세기경 강씨, 목씨 등이 정착하여 마을이 형성되었고, 그 후 조선 명종 때 장사랑을 지낸 이연 일가의 낙향 이주로 예안 이씨 세거가 시작 되었으며, 그 후손들이 번창하고, 많은 인재가 배출되어 고택들이 건립되면서 점차 班村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민속 유산을 보존하고 있어 가옥이 모두 班家와 草家로 되어있으며 설화산 계곡의 물줄기가 마을을 흐른다.

전래하는 민속 행사로는 칠석날 지내는 칠석놀이, 정월 보름경에 지내는 장승제, 노신제, 느티나무제가 있는데 지금은 주민의 호응도가 낮아져서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3) 구연자 조사

【외암리 구연자 1】

송악면 외암리 1구, 강희춘(姜熙春), 남.

1994. 6.29., 한혜인 조사.

외암리의 이장을 맡고 있다. 처음엔 그리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었으나, 취지를 이야기하자 조사자들이 묻는 말에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었다. 외암리가 민속마을로 지정된 지는 그리 오래지 않지만 민속마을로 지정된 것이 마을 주민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쪽이 많다고 말하였다. 차분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점차 친숙해지자 자체가 모두 서울의 명문대학에 다닌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기도 하였다. 원래 고향은 충남 보령군 청남면이라고 했다. 그곳에서 송악면 동화리로 이주해 살다가 이곳 외암리에 온 것은 자신이 3대째라고 했다. 글방 선생으로부터 들었다면서 <설화산과 이순신 장군 묘자리 쓴 이야기>을 구연해 주었고 참판댁의 이득선씨를 구연자로 소개해 주었다.

【외암리 구연자2】

송악면 외암리 1구, 이득선(李得善), 남, 55.

1994. 6. 29., 한혜인 조사.

예안이씨 이간의 후손으로 지방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참판댁’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다. 연엽주의 전수자로서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본인은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눈치였다. 자신도 그다지 예의 바르거나 학식이 있어보이지는 않았지만, 조사자들을 불만스럽게 살펴보면 요즘 사람들은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경망스럽다고 하여 조사자들을 약간 당황스럽게 하기도 했다.

현대문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고 사회 고위층에 대한 생각도 무척 부정적이었다. 자신은 대학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였고, 교수도 몇 년 하고 서울시청에서도 근무하였으나 교수라는 직업도 별 것 아니고, 시청 공무원들의 비리 때문에 살 수 없어서 낙향

했다고 하였으나 신뢰감은 들지 않았다. 구비문학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았다. 구연하는 태도는 연설조이고 그 전에도 연엽주 제조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했었던 것으로 느껴졌다.

【외암리 구연자 3】

송악면 외암리 1구, 오병순(吳炳順), 여, 52.

1994. 6. 29., 한혜인 조사.

외암리 입구에서 슈퍼를 경영하고 있다. 구비문학에 대한 이해는 없었으나 조사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설화 하나를 예를 들었더니 어렸을 때 진짜 보기도 했고 또 어른들에게 들은 일도 있다고 하면서 <도깨비 이야기>를 구연하였다. 원래 고향은 강당리이고 그곳으로 시집와서 살고 있다고 하였다. 순박하고 인정이 많은 아주머니였다.

4) 설화자료

【외암리 설화 1】

송악면 외암리 1구 강희춘씨 댁, 1994. 6. 29., 최상은, 한혜인, 권민정 조사.

강희춘(남)

설화산과 이순신 장군 묘자리 쓴 이야기.

역촌, 외암 앞

근디 이 설화산에 대한 설화가 많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서가지고 장지를 잡으러 댕졌대. (조사자:예.) (발음불명) 에 중국에서 유명한 지관을, 지상, 풍수지리학하는 지상을 데려와가지구 이순신 장군 묘를 잡으러 댕졌대 이거여. 그랬는데 참 설화산에 가 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자리가 있다 이 얘기여. 7층8장지²⁶⁾가 있다는 겨. 일곱 정승이 나고 여덟 장수가 날 만한 7층8장지지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겨. 그런데 단 이순신 장군은 연운이 맞질 않는다. 살생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아무리 적군일 망정 살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만한 응분의 댓가를 치뤄야 다음의 대열이 좋아질 수가 있지, 지금 그 자리는 그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못 된다. 그래 그냥 떠났대는 겨. 그래가지구 음봉 가서 이순신 장군 자리를 찾는데 6대 과부가 날 자리여. 그래 아들하나 낳구 나면 남자는 죽구. 6대 과부가 난다는 겨. 그렇게 해야 자기가 살생을 많이 한 원죄를 벌을 수 있다 해가지구서 그 자리를 잡아 줬다는 겨. 그 지상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후루다가 여기에 7층 8장지지가 있다고 해가지구선 투장이, 옛날엔 투장이라는 것을 많이 했어. 일곱추자. 몰래 갔다 장사를 지내는 것이지. 인제 조상의 유골 같은 거 갖고 와서. 이 근방이 모두 전부가 한대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저기 안 되는 겨 그냥. 비가 안오고 하니까. 그래 마을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거기 가서 파냈어요, 묘를. 인제 그 산 근방에 투장한 흔적만 있으면, 어딘진 확실하게 모르니까 아무두. 파내가지구선 시체를 집어내버리구 하면 비가 오고 괜찮았다 하는 얘기가 지금도 노인네덜한테 전해져 내려와.

【외암리 설화 2】

송악면 외암리 1구 오병순씨 슈퍼마켓, 1994. 6. 29., 최상은, 한혜인, 권민정 조사.

오병순 (여, 52)

도깨비 이야기

동화, 외암 앞

그래가지구 아침에 일어나면 소두방 뚜껑이 그냥 안으루 들어가서 밥을 못해먹은 때가 있었대요. (조사자:도깨비가 그랬대요?) 응. 그래 인제 그 다음날에 도깨비가 이러키 빼놔줘서 해먹구, 옛날 어른들이 그런 애길 해주더라구. 있어요. 이런 헌집같은 데 그랬었대요.

【외암리 설화 3】

송악면 외암리 1구 이득선씨 택, 1994. 6. 29., 최상은, 한혜인, 권민정 조사.

이득선(남, 55)

연엽주에 얹힌 일화

역촌, 외암 뒤

(조사자:바깥에 들어오다 보니까 연엽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기게 됐습니까?) 예. 제게로 5대조 되시는 할아버지께서 전직이 비서관송이라는 직을 지내셨는데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근데 거기 계실때 몇 년동안 가뭄이 들어서 어 시골서는 굶주리고 막 이러는데 궁에서는 그런 것을 몰르고 호의호식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그 상소가 각 8도에서 유림이라든지 향교라든지 그(발음불명) 상소가, 서울서는 성균관의 유생들이 상소를 올리고, 그것이 상소문이 한 두 장 한 백 장만 같아도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렇게 무마하시겠는데 이것이 짐으로 저도 몇 짐이 들어온다 이거여. 맨날 그렇게 들어온다 이거여. 지금으루 말하면 데모하는 식으루. 그게 데모지 그게. 그러다 이 양반이 어떻게 처리를 못해갓구 맨처음에 암행들을 불러다가,“내용을 니들도 한번 다 봐라, 나는 다 본거니까. 실태가 똑같은가 얼마나 차이가 나나 눈으로 가 봐야지 답답하여서 내가 못 살겠다.”하는 애기지. 그래 팔도로 다 흩어져서 그 상소문대로 얼마나 차이가 나고 얼마나 그짓말이 있는지 상세히 조사를 해가지구 오라고. 그래 나가서 왔을 거 아녀 인저. “그 상소문보다 더한 데도 있고, 그 상소문보다 덜한 데도 있고 잘 먹구 사는 데도 있구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상소문보다 더 못한 데가 많으냐, 더 난 데가 많으냐 이거를 또 해야 내가 또 임금님한테 올리던지 할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등비등하다는 거여. 잘 먹지도 못하는 디두 반쯤 있구, 또 아주 못 먹는 디두 좀 있구, 잘 먹는 디두 있구. 그래 이 상소문하고는 조금 차이나는 지역이 있고. 또 이 상소문 보다는 아주 못 먹는 디도 있구.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인제 암행들은 내려가고. 인저 삼정승들을 불러놓고 애길 하신 거여. “요러요러요런 암행들이 다녀왔는데,요러요런 대답이 나왔다. 상소문은 이렇다.” 그러니까 삼정승들이,“이게 하도 많이 들어왔고 계속 들어오고 지금도. 이런 위에다가 알려야지 나중에 아무 때고 이것이 터지는데 왜 안 알렸냐 하면은 그 죄는 우리 셋하고 당신백이 인제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

러키 하구서, 심기는 임금님이 불편하시더라도 할 수 없이 알려야 한다. 한두 장두 아니구 백 장, 아니 몇 천 통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사태라는 것을 알려드려야 된다. 그래 할 수 없이 알리니까 임금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렇다면 임금이 혼자 있으면 무슨 임금을 하나, 백성이 많아야 임금 노릇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은 인제 지금 말하면 7월달로 한다던지 9월달로 한다던지 군무 회의를 열었겠지 삼정승들 하구 육조 판서들 하구 해가지구. 그래 회의를 해가지구 그러면 궁에서도 간식, 떡이니 수정과 식혜. 하여간에 간식은 일절 안 해먹기로. 그럭하구 임금도 그 인제 혼합곡이지. 예전에는 잡곡이라고 해가지구 임금님은 옥반이라고 해서 하얀 쌀밥만 자시거던. 그런데 인제 잡곡, 섞일 잡(雜)자, 곡식 곡(穀)자. 잡곡이라구 해서 콩하고 팥하고 뭐 요렇게 세 가지를 한 두 개씩 위에다가 모양으로 놓는 거지 그제. 사발에다가 밥을 떠 놓고 거기다가 보리 한 두어개 놓고 콩 한개 정도 놓고, 팥 한개 정도 놓고 그래 몇 가지가 들어갔잖어. 여하간에 잡곡이 됐거든 인제. 잡곡밥이다 하는 것이 인제 지금은 혼합곡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 밥도 잡곡으로 해라 내밥도. 그러키 해서 가지구 통과되가지구. 그래 인제 금주령이 나가지구 할아버지께서 몇 달을 그랬는진 모르겠구. 할아버지께서 잡숫구 싶어서 그랬는지, 삼정승들이 시켜서 그랬는지는 임금이 시켜서 했는지 그 기간은 모르지만 내 생각으로서는 그 미안하잖어. 맨날 자시던 술을 그 비서가 그제 암만 하지마라 딱 해놓았지만은 금방은 물릴 수 없잖어 금방은. 육개월이고 팔개월이고 있다가 인제 일반 약주잖어. 그 일반 약주. 임금님 잡수시는 술을. 우리네 먹는 것은 그냥 술이지만, 반주, 약주 이렇게 해는데. 마음이 불안하구 죄스럽다 하셨겠지. 그래가지구 약이 되는, 임금님이 잡수셔서 몸에 약이 되는 보약주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이 되는 술을 뭘 하나 개발해 오너라 이러셨다. 그러니까 모여서 회의를 했겠지. 그래서 (발음불명) 맨들어 온 것이 바로 연엽주여, 그제.(지금은 주로 집안의 제주로 쓴다는 등 사실 얘기를 계속했다.)

1) 靑山 大同積

2) 쌀이고

3) 門前流水 福召來

4) 산 지가

5) 스승(충청도 방언에서 '조'를 뜻함.). 스승쌀 : 좁쌀.

6) 입정미(入鼎米) : 순수한 우리말로는 '아주먹이'.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을 만큼 정하게 쪄낸 쌀.

7) 아내는

8) 바깥에서는, 남편은

9) 제사

10) 마누라, 아내

11) 아이의 시체를 겨우 풍우를 가릴 정도로 허술하게 묻는 일, 또는 그 무덤.

12) 도마

13) 사람 냄새

14) 닿아야지.

15) 밤에.

16) 벗기면

17) 내듯이

18) 캄캄한

19) 두 칸

20) 세 칸

21) 통인(通引) : 심부름꾼

22) 추적한다는 의미.

23) 병으로

24) 여기다 넣어가지고

25) 벼랑길

26) 칠승팔장지지(七丞八將之地)